

공무원 1인당 담당 인원, 북구 5493명 > 동구 2374명

광주 자치구 복지서비스 불균형 심각

광주시 북구청에서 18번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김모(여·47·사회복지 7급)씨. 김씨의 ‘소박한’ 소원은 오전 9시 출근한 뒤 오후 6시에 ‘갈퇴근’ 하는 것이다. 야근을 막아주는 김씨의 하루 업무시간은 대략 14시간.

민원인과 하루 종일 일씨름을 하다 보면 퇴근 시간을 훌쩍 넘기기 일쑤다. 하루 평균 20명의 민원인과 50통이 넘는 전화상담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민원인들로부터 “생계비를 가불해 달라”는 등 갖가지 요구를 들어주는라 ‘파김치’가 되고 만다.

김씨는 “우리 구의 경우 장애인·

기초수급 대상자 등 소외계층이 많아 업무량이 다른 구의 2~3배 가량 될 것”이라며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별로 사회복지 공무원 수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 따르면 구별 복지 서비스 불균형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인구 50만을 바라보는 북구와 10만 선도 지키기 버거운 동구의 편차는 심하다. 전체 공무원 수는 동구가 578명, 북구가 906명이며, 이 중 사회복지 공무원 수는 각각 44명과 85명이다.

동구는 사회복지 공무원 1명당 담

당인구가 2374명인 반면, 북구는 5493명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동구·북구의 기초수급대상자 수가 각각 7349명, 2만2360명인 점을 감안하면, 사회복지 공무원 1명당 동구는 167명, 북구는 263명을 담당하는 셈이다. 장애인 수는 5986명·2만1687명으로, 각각 1명당 136명, 255명을 책임지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북구에서는 공무원 1명이 지역아동센터 82곳을, 동구에서는 14곳을 관리하고 있는 등 각 분야에서 불균형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자치구 사회복지 공무원이 수혜자수에 따라 적절히 배분되지 못하면서

서비스의 질이 들쭉날쭉하고 있는 것이다.

두 구청의 복지예산 부담에 따른 체감률도 편차가 크다. 동구는 복지예산이 755억322만원(지난해 예산 1578억732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7.8%를 차지한 반면, 북구는 1881억9434만원(≒ 2900억4651만원)으로 전체의 64.9%나 된다.

특히 복지예산은 지방비 부담(40~50%)이 커 북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에 물론 주민서비스 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문화수도 꾸미러 왔습니다

17일 조선대 앞 푸른길에서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공동감독인 아이웨이웨이(왼쪽)와 송효상(오른쪽)씨가 이곳에 서울 건축조형물을 구상하고 있다. 베이징올림픽 주경기장을 설계한 아이웨이웨이 등이 참여한 어반폴리 프로젝트는 광주 도심 10곳에 이색 건축물을 남기게 된다. ▶관련기사 13면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신안·고흥에 투자한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남 조선·풍력산업 ‘불뚝’

감소비율 전국 1위...전남은 20대 유출 전국 최다

도심 공동화로 광주시 동구에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 인구 유출 비율이 전국 230개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역시 적극적인 기업 및 투자 유치에도 불구하고, ‘관창은 일자리’를 찾아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젊은층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 지역 경제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17일 내놓은 ‘2010년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시 동구의 순이동률은 -4.8%로 전국 230개 시·군·구에서 가장 높았다. 동구의 경우 지난해 2만5082명이 타지역으로 빠져나간 대신, 2만699명이 전입하는데 그쳐 인구 유출 규모는 5013명에 달했다. 이같은 인구 대비 순이동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수도권 공동화 대책이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

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했다.

해남도 지난해 9632명이 타지역으로 빠져나갔지만 7824명만 주소지를 옮기면서 결과적으로 1808명(순이동률 -2.3%)이 감소, 유출률이 전국 시·군·구 가운데 8번째를 차지했다.

반면, 광산구는 지난해 순유입 인구가 1만5443명(순이동률 4.4%)으로 전국 시·군·구 중 7번째로 높았다. 광산구는 수완지구 조성이 마무리된 데다, 경기 회복 조짐을 타고 ‘갈타기’ 수요가 늘면서 7만7025명이 새로 전입, 6만1582명이 빠져나간 자리를 메웠다.

전남의 경우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20대 연령층 비율이 -3.6%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20~24세 연령층의 경우 전입보다 전출이 4610명 많았고 25~29세 연령층에서도 전출 초과가 3401명으

로 파악됐다. 통계청은 광주와 서울·경기 등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인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 및 취업으로 인한 인구 유출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산업 기반이 취약한 탓에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고 채용 인원도 적은 점도 한 몫하고 있다. 전남도가 ‘기업 2000개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외당자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경기 침체와 전세난 등에 따라 지난해 읍·면·동 경계를 넘어 이동한 사람은 822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3.1%(26만1000명) 줄어 1998년(815만6000명) 이후 가장 적었다. 인구가 동률(인구 100명 당 이동자 수)은 지난해 16.5%로 전년보다 0.6%포인트 감소했으며 1974년의(15.3%) 이후 36년 만에 가장 낮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가 서남권 조선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야심차게 추진했던 신안조선타운은 일반산단과 고흥조선타운이 좌초될 처지에 직면했다. 산단 개발에 금융권 투자자로 참여했던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면서다.

〈관련기사 8면〉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신안군 압해면 1335만㎡(404만평)에 조성중인 신안조선타운 일반산업단지와 고흥군 도암읍 2.76㎢에 고흥조선타운을 개발하는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는 부산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따라 영업을 정지됐다.

신안조선타운은 신안군 압해면 북측 884만1000㎡ 부지에 조선업체를 비롯해 조선기자재업체와 해상풍력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를 유치하는 조선산업지구로 조성하는 한편, 배후단지인 압해면 남측에 인구 5만을 수용할 수 있도록 1만9930가구의 주거중심지구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왔다.

부산저축은행은 계열사인 부산 2저축은행과 각각 23억5000만원씩 47억원을 출자해 자본금 295억원 규모인 신안조선타운 개발 전담법인(SPC)인 서남조선산업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서남조선산업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13개 업체 중 유일한 금융회사로 사업비만 2조934억원에 달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PF(금융파이낸싱) 등 핵심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영업정지 조치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여기에 서남조선개발에 가장 큰 규모인 112억원을 출자한 진세압해조선은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씨엔중공업(33억 출자)은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지원 중단 결정이 내려진 상태로 투자가 불가능한 것을 감안하면 2012년까지 계획됐던 조선타운 산단 조성은 사실상 힘들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고흥군 도암읍 일대 2.76㎢에 3572억

원을 투입해 조성키로 했던 고흥 조선타운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부산저축은행은 이 사업에 19.4%의 지분을 갖고 전담법인 설립에 출자한 상태다.

전남도도 신안 조선타운 일반산단 조성을 통해 서남권 조선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5GW 풍력프로젝트와 연계한 풍력산업 전진기지 조성을 내걸었던 만큼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저축은행과의 통화도 안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느라 정신이 없다”며 곤혹스러워했다.

전남도는 신안 조선타운의 경우 전체 사업부지 중 풍력단지(231만4000㎡)만 떼어내 별도 SPC를 설립, 추진하면서 나머지는 잠정 보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조선산업이 침체된데다, 투자회사를 찾기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전남도 관계자는 “사업지구를 축소해 우선 개발이 가능한 범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사교육비 절감의 도심형 기숙학원!!

+50점 상승 전략, 알 때까지 가르치는 무한 학습 관리!!

['도심형 기숙학원' 내입재수 종합반 모집]

개강: 1차 2월 14일(월) / 2차 3월 2일(수)

1. 최고의 환경과 최강의 강사진

2. 학과·학습·생활 ▶ 철저한 담임제

3. 연·수·외 강사진 24시간 질의 응답 및 1:1 무한 관리

4. 반별 정원 30명 내외(소수 정예)

5. 매월 논술 모의고사 실시 및 참석 지도

※ 직접 방문 확인 하신후 등록 하세요!

1인1실 숙소

패션한 강의실

인터넷 강의실

자기 주도 학습실

구내 식당

체력 단련실

호남권 학생 특별 우대!!

월 1,190,000원

수강료 + 기숙사(1인1실) + 식비

등록상담(일산본원) 031.9192.114 [광주] 062.434.8113

한 국 학 원
하이클래스 hiclassedu.co.kr